

가을 전남 섬 여행

가을색이 뚜렷해지고 있다. 깨끗한 하늘에 향기로운 산과 들. 집에서만 텅굴기에는 아까운 날씨,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즐기고 그윽한 가을 향기가 그윽하다.

숫덩이처럼 지쳐버린 일상에서 뛰쳐나와 한적한 곳에서 푹 쉬고 싶다는 싶은 생각이 절로 차오른다. 이때 여행 마니아들의 발길이 섬으로 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귀를 멀게 하는 여름의 복적거림도,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도 찾기 힘들다. 쉽게 닿지 않는 곳에 대한 선망과 신비로움으로 가슴이 설렌다. '그 섬에 가고 싶다'고 주문을 거는 여행객들에게 전남의 아름다운 섬을 소개한다.

점점이 흩뿌려진 다도해의 풍광에 사색과 명상은 '담'이다.



임자도는 활시위처럼 휘어진 해변에 끝없이 펼쳐진 모래 해변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파란 가을 하늘보다 더 푸른 바다, 임자도는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섬이다.



바다 건너온 가을바람에 내 마음을 엿어봅니다

◇임자도

휘어진 모래해변·전장포 새우 유명  
속식객정 끝 '신안군 청소년수련관'

활시위처럼 휘어진 해변에 끝없이 펼쳐진 모래 해변과 전장포 새우로 유명하다. 12km에 이르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대관해수욕장을 따라 걷는데만 3시간이 족히 걸린다. 바람이 크게 불면 섬 전체가 모래로 뒤덮인다. 오죽하면 '임자도 처녀 모래 서말을 먹어야 시집간다'는 속담이 나왔을까.

이때쯤 임자도 여행은 최적이다. 한가롭게 보드라운 가을 햇볕을 등에 지고 해변을 느리게 걷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살랑대는 바람을 맞으며 가족들과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바리바리 집을 싸들고 갈 필요도 없다. 대관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신안군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면 잡자리와 식사, 체험 프로그램까지 한번에 해결된다. 비용도 저렴하고 어느 곳에서 봐도 탁 트인 바다가 고스란히 들어올 정도로 풍광도 기막히다.



'신안 청소년수련관'

무동력고무보트를 타고 무타리섬(옷을 벗지 않아도 된다는 '무탈의'(無脫衣)에서 나왔다)으로 건너가 생태 체험을 할 수 있고 숲속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해변 말(馬) 축제가 열리는 섬이어서 승마 체험도 가능하다.

문의 신안군청소년수련관 061-275-7770.

◇송이도

몽글몽글 조약돌 해변서 맨발 지압  
아이들에게 최고의 체험장소 '폴딩'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松耳島·면적 2.97km)는 범성포에서 28.5km 떨어진 섬으로, 몽글몽글한 하얀 조약돌 해변이 길게 3.5km, 30ha에 달한다. 맨발로 다녀도 전혀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동글동글하다. 하얀 조약돌은 한때 국내 유명 그릇공장에서 재료로 가져갈 정도로 상품성이 있다.

하얀 잔돌로 뒤덮인 해변에 관나무 군락,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풍경은 더없이 아름답다.

특히 절이 지나 한적하지만 한 해질녘 바닷가에서는 맞는 낙조는 가을이 깊을수록 더욱 아름답고 여유롭다.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폴딩'은 아이들에게는 놀만한 운동장이고 맛조개와 대합이 널려 있는 신기한 체험장소다. 주민들 인심도 넉넉해 공동 어장인 자갈 해변에서 마음껏 자연산 바지락과 조개 등을 캐다 먹을 수 있다. 해변 앞에 어민회관을 겸한 펜션은 깨끗하고 전망이 좋다. 하루 한 편인 배편이 다소 흠이지만 도시민들에게는 쉽게 닿지 않는 곳에 대한 막연한 선망과 신비로움은 그만큼 커진다.

문의 영광군 낙월면사무소 061-350-4931, 011-9660-3444 송이도 어촌계장.

◇연홍도

쪽빛바다 금당 8경 '숨겨져 있는 섬'  
바다가 정원 '연홍미술관'서 하룻밤

연홍도(連洪島·0.55km)는 '숨겨져 있는 섬'이다.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에 속하는 작은 섬으로,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연(鰲)과 같은 섬이라 연홍도(鰲洪島)라 불렀다가 일제 시대 거금도와 맥이 이어졌다며 연(連)홍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고흥에서 철부선(鐵浮船)을 타고 소록도를 지나 거

금도로, 거금도를 타고 다시 한 차례 건너가야 한다. '가도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인 듯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뱃시간만 맞추면 40분이면 닿는다.

섬 정상에 오르면 일상에 찌든 때가 해풍에 쓸려 가고, 마늘밭 너머 시원하게 트인 쪽빛 바다와 금당 8경은 '그림엽서'나 다름없다. 풀밭레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부서지는 파도소리는 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생생한 자연음'이다. 도시에서의 '탈출'을 감행할 만 한 섬이라는 얘기도.

남쪽 바다를 정원으로 들인 '연홍미술관'은 섬의 '백미'로, 관광객의 속으로 활용되기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앞마당에 앉아 있으면 바다 다음에 평화로움이 밀려온다. 미술관 바로 앞 부두는 낚시 포인트다. 문의 연홍미술관 061-844-4884.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연홍미술관'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10월 18일 까지 30% 대세일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치 않습니다!

모든 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 독점 수입) (주)홍스페이스는 100%이태리 친환경 엔틱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스페이스 SPACE 062 226 7567

광주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 빌딩(동구청-전여고사이) SINCE 1992 100% 이태리 가구 직수입 도 소매